

# 報 道 資 料

이 자료는 2006년 9월 14일 (목)  
석간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FTA와 경제구조 변화 :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

- 일 시 : 2006년 9월 14일 09:00 ~ 16:30  
2006년 9월 15일 09:00 ~ 16:00
- 장 소 :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
- 주 최 : KDI(한국개발연구원)  
KORUS FTA 민간대책위원회

- 40여 년 가까이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우리 경제는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큼.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
-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경제들의 경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가치 있는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이에 KDI와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싱가포르 등 관련 국가들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미국과의 FTA 체결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얻어 질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제 회의를 개최함.
- 본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FTA를 통해 경제 성장, 안정, 수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경제 성과를 극대화하고 그 효과가 고용 창출, 소득 불평 등의 개선 등으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조정 등 대내적 경제 여건의 변화와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을 조언함.
- 알레잔드로 드 라 前 APEC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NAFTA는 멕시코가 기존의 보호무역에서 탈피하여 수출지향적인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밟아야 하는 논리적인 과정이었다고 하면서 부문에 따라 득도 있고 실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득이 실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음.
- 김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멕시코의 경제성장 둔화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중국의 부상이 주원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중간재 산

업의 육성 등이 멕시코 경제의 향후 과제라고 하였음.

- 제라도 에스퀴벨 멕시코대학교 교수는, 멕시코 경제에 대한 NAFTA의 긍정적인 효과는 교역이나 투자와 같은 중간목표의 측면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효율성의 증대 등과 같은 최종목표의 측면에서도 확인된다고 하였으며 한미 FTA가 양국간의 교역 및 투자의 흐름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음.
- 클라우디오 브라보 칠레대학교 교수는, 칠레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개방정책이 무역, 경제성장, 고용 등의 제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알레잔드로 자라 칠레중앙은행 연구위원은, 제도개혁과 개방화 정책을 통해 칠레경제가 거시경제적인 안정성 유지와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음.
- 로베르도 아부사다 페루경제연구소 소장은, 페루가 1990년대 이후 시장개혁과 무역 개방화를 통해 총 요소생산성과 국내 총생산의 증가를 이룰 수 있었고 현재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음.
- 에스더 아리스티 글로벌 파운데이션 연구위원은, DR-CAFTA가 자유로운 무역과,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의 제도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법적 구조이며 그 결과는 경제 구조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문의 :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958-4204  
정재화(무역연구소 FTA 팀장) 6000-5263

**한국개발연구원 대외협력팀**  
TEL : 958-4030 FAX : 960-0652 E-mail : press@kdi.re.kr

## [프로그램]

2006년 9월 14일(목)

09:00~09:30 등록 및 네트워킹

09:30~09:40 개 회

환영사 :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09:40~09:50 축 사 :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09:50~10:30 기조 연설 : “멕시코의 관점에서 바라본 NAFTA”

알레잔드로 드 라 페나

(전 APEC 사무총장, WTO 멕시코대사)

10:30~10:40 휴 식

10:40~12:30 제1세션. NAFTA : 멕시코의 경험과 시사점

사 회 : 현오석 (무역연구소 소장)

발 표 : “NAFTA이후 멕시코에서의 산업구조조정”

김중섭 (서울대학교 교수)

“NAFTA가 멕시코 경제의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

제라도 에스퀴벨 (멕시코대학교 경제연구소 교수)

“멕시코의 농업 : NAFTA이후 12년”

조지 다이어 (캘리포니아대학교, 멕시코대학교 교수)

토 론 : 로베르토 아부사다 (페루경제연구소 소장)

클라우디오 브라보 (칠레대학교 교수)

라홀 센 (동남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12:30~14:00 식 사

14:00~14:40 기조연설 : “양자간 무역협정에의 현명한 접근”

래리 샤프스타드 (시카고대학교 교수)

14:40~15:00 휴 식

15:00~16:30 제2세션. 칠레의 세계화 경험과 시사점

사 회 : 유장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 부총장)

발 표 : “칠레의 무역자유화 : 역사적 관점”

클라우디오 브라보 (칠레대학교 교수)

“세계화와 칠레경제 : 개혁과 성과”

알레잔드로 자라 (칠레중앙은행 연구위원)

토 론 : 에스더 아리스티 (글로벌 파운데이션 연구위원)

김의성 (연세대학교 교수)

2006년 9월 15일(금)

09:00~09:30 등록 및 네트워킹

09:30~10:10 공개강연

“미국과의 FTA 및 무역자유화 : 페루의 경험”  
로베르토 아부사다 (페루경제연구소 소장)

10:10~10:30 휴 식

10:30~12:30 제3세션. 미국과의 FTA : 각국의 경험과 시사점

사 회 : 박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발 표 : “DR-CAFTA : 체결목적과 경제의 구조적 변화”  
에스더 아리스티 (글로벌 파운데이션 연구위원)  
“NAFTA와 캐나다 경제”  
이준규 (KIEP 연구위원, 재경부 대외경제자문관)  
“미국-싱가포르 FTA와 경제적 시사점”  
라홀 센 (동남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토 론 : 조지 다이어 (캘리포니아대학교, 멕시코대학교 교수)  
제라도 에스퀴벨 (멕시코대학교 경제연구소 교수)  
김원호 (KIEP 선임연구위원)

12:30~14:00 오 찬

14:00~16:00 공개토론

미국과의 FTA : 외국의 경험으로부터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교훈

사 회 : 래리 샤프스타드 (시카고대학교 교수)  
토 론 : 로베르토 아부사다 (페루경제연구소 소장)  
에스더 아리스티 (글로벌 파운데이션 연구위원)  
클라우디오 브라보 (칠레대학교 교수)  
조지 다이어 (캘리포니아대학교, 멕시코대학교 교수)  
제라도 에스퀴벨 (멕시코대학교 경제연구소 교수)  
알레잔드로 자라 (칠레중앙은행 연구위원)  
알레잔드로 드 라 페나 (전 APEC 사무총장, WTO 대사)  
라홀 센 (동남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김원호 (KIEP 선임연구위원)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  
이시욱 (KDI 연구위원)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채 옥 (KIEP 선임연구위원)

16:00 정리 및 폐막

## [기조연설] 멕시코의 관점에서 바라본 NAFTA

### 알레잔드로 드 라 페나 (전 APEC 사무총장, WTO 멕시코대사)

-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 NAFTA 이후 멕시코의 경제 성과는 미국과의 FTA 체결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가장 고전적이고도 직접적인 실험적 사례가 될 것이며 한국에 주는 시사점도 클 것
-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수입대체를 지향하는 보호무역을 지향하여 왔으나, 이러한 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
- NAFTA는 멕시코가 기존의 보호무역에서 탈피하여 수출지향적인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밟아야 하는 논리적인 수순으로 이해하여야 함
- NAFTA는 협정문 전문이 14,000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협정으로, 멕시코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재화의 자유무역, 표준관련 문제, 정부 조달, 투자, 역외서비스교역, 통신,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분쟁조정 등임
- 멕시코에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관찰기간중 멕시코 경제에 영향을 미친 여러 다른 요소들과 NAFTA의 효과를 구분해 내는 것임.
  - NAFTA가 경제성장, 지역간 교역, 제조업(특히 자동차산업, 전기·전자 산업, 섬유·의복 산업 등) 그리고 농업 등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보면, 변수에 따라, 그리고 부문에 따라 득도 있고 실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득이 실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
  - 개방으로 인한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국내 경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멕시코 사례는 다른 나라들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
  - 나라마다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장 적합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여야 함

## [제 1세션] NAFTA : 멕시코의 경험과 시사점

### 1. NAFTA이후 멕시코에서의 산업구조조정

김종섭(서울대학교 교수, 019-\*\*\*-\*\*\*\*)

최근 멕시코 경제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 경제의 둔화로 경기둔화를 겪고 있으며, FTA의 대내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립 가공을 피하고 중간재 산업을 발전시키고 등의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함을 보여줌

□ 멕시코는 최근 경제성장률 및 수출증가율의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 주요인으로 미국의 경기침체와 중국의 빠른 부상을 들 수 있음

○ 미국과의 상호 경제의존도 확대 및 이에 따른 경기 동조화로 인해 NAFTA 체결 이후 미국의 경기확장기에는 멕시코 경제도 이로 인한 반사적 이익을 향유

- 그러나, 2001년 이후 미국 경기가 다소 하강하면서 멕시코 경기둔화의 주요인으로 작용

○ 2002년 이후 멕시코의 대미시장 시장점유율은 다소 하락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대미 시장점유율은 꾸준한 증가세

- 2003년 이후 대미 시장점유율 면에서 중국이 멕시코를 상회하고 있으며, 양국간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

- 중국과 멕시코 간 주력 수출품의 구조의 유사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미 및 전세계 무역경합도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

\* 무역경합도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분석에 따르면, 양국간 전세계 (대미) 무역경합도는 95년 36.9 (30.6)에서 02년 현재 43.8 (39.8) 수준으로 상승

□ 한편, 수출구조가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조립·가공형 위주라는 사실이 (i) 수출의 전반적인 호조에 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이에 못 미치는 점과, (ii) 수출제품의 구조변화에 비해 제조업 생산 전반의 구조변화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점 등의 주 원인으로 지적됨

○ 중간재산업의 낙후로 인해 전자제품 등 수출품의 대부분이 수입 중간재를 국내에서 조립·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

- 최종소비재나 자본재 부문에서는 무역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반면, 중간재 부문 무역적자는 1996년 이후 확대

□ 또한, 중간재산업의 상대적인 낙후로 인해 고용창출이 경제규모의 확대에 대비하여 높지 않으며, 국내 투자의 증가율도 외국인 직접투자에 비해 낮은 편

- 멕시코의 경우 조립가공은 대기업이 주로 담당하며 국내 중간재 산업부문에 비해 보다 자본집약적인 구조인 바, 신규 고용의 창출이 높지 않음
- 대부분의 조립가공은 다국적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낙후성을 띄는 중간재산업은 국내기업 위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GDP 대비 투자율은 NAFTA 이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전체 투자 대비 FDI의 비율은 현저히 증가

□ 산업 구조에 따라 NAFTA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은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을 비교해 볼 경우 극명하게 드러남

- 전자제품의 경우 NAFTA 이후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확대된 반면, 자동차산업은 오히려 감소

- 전자제품의 경우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27.8%에서 36.9%로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 비중 면에서는 1997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03년 현재 4.9%를 기록

- 한편, 중간재의 국산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동차산업은 95 ~03년 기간 중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대를 유지하면서 전체 제조업 생산 대비 비중은 오히려 증가

- 그 결과, 멕시코 자동차산업은 북미 생산네트워크에 자연스럽게 통합된 반면, 전자산업의 경우에는 단순 조립 센터화

- 멕시코의 경우 자동차 부품산업은 NAFTA 체결 이전에 이미 발달되어 있었으며 NAFTA의 체결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창출

- 반면, 멕시코정부는 관련 부품산업의 미발달로 인해 조립산업부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으며, 그 결과 경쟁력이 낮은 부품산업이 침체하는 결과를 낳음

## [제 1세션] NAFTA : 멕시코의 경험과 시사점

### 2. NAFTA가 멕시코 경제의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

제라도 에스퀴벨 (멕시코대학교 경제연구소 교수)

□ NAFTA 체결 이후의 경제적 조정과정이 멕시코 경제에 준 충격은 일부 연구자들이 우려하던 것만큼 격심하지 않았음

- 이는 경제개방에 대한 조정과정이 이미 80년대 중반의 개방정책 직후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모든 FTA에는 득과 실이 있으나, NAFTA의 경우에는 멕시코 경제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멕시코 경제에 대한 NAFTA의 긍정적 효과는 교역이나 투자와 같은 중간 목표의 측면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 효율성의 증대 등과 같은 최종목표의 측면에서도 확인됨
- NAFTA의 효과들 중에서 가장 우려할만한 부분은 지역 간 격차의 확대이나, 이 문제는 예견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준비도 없었고 예방적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는 양국간의 교역 및 투자의 흐름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한국이 이미 고도의 개방 경제이라는 점과 한미 간의 지리적인 거리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
- 한편, FTA가 회원국에 대한 차별적 특혜를 근간으로 함을 고려하면, 한미 FTA가 멕시코를 포함한 제3국들에게 간접적인 부정적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음

□ 멕시코는 1985년 개방정책이 시작되기까지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가진 매우 폐쇄된 경제였음

- 1990년대 초 멕시코는 미국 및 캐나다와의 FTA 체결 의향을 공표
- 멕시코와 미국은 인접국이며, 모두 대규모 경제이고, 노동력 구조의 상호보완성이 높음
- NAFTA 이전에도 멕시코 수출의 80% 이상, 수입의 70% 이상이 미국을 대상으로 함

□ NAFTA가 멕시코의 교역과 투자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은 의문의 여지

## 가 없음

- 수출입이 (절대액 및 GDP 대비 비중 모두) 1993년 이후 크게 증대함
- 수출에서 제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원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함
- 멕시코의 대외 교역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졌고, 멕시코는 현재 미국의 제2의 무역 대상국
  -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교역량은 미국의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과의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도 큼
- 멕시코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무역 개방이 추진된 시기와 임금 불평등도가 증가한 시기가 일치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무역 개방이 불평등도의 증가의 원인이라고 주장할 과학적 근거는 희박
  - 오히려 1980년대~90년대의 숙련노동을 선호하는 방향으로의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가 갖는 소득분배 상의 부정적 효과가 무역자유화로 말미암아 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 (Esquivel and Rodriguez-Lopez, 2002)
- NAFTA로 말미암아 멕시코의 일자리들이 줄었다는 비판이 있으나, 실증적 증거들을 확인해보면 NAFTA 체결 이후 창출된 일자리들의 대부분이 수출과 관련된 일자리들로 나타남
  - 전자산업이나 섬유산업의 경우와 같이 초기의 무역 자유화 직후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나 NAFTA로 인하여 오히려 회복된 경우도 있음

## [기조연설] 양자간 무역협정에의 현명한 접근

래리 사스타드 (시카고대학교 교수)

대외개방을 추구하는 경우 주요 통화간의 환율이 작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시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최혜국대우에 기초한 비차별원칙을 지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범세계적인 자유무역 추진의 노력(DDA)은 지난 7월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양자간 또는 지역 내(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세계 경제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음
  - 양자간 또는 다자간 FTA는 범세계적인 자유무역보다는 후생 증진의 효과가 약하지만 범세계적 자유무역이 불가능한 현실에서는 차선의 방법임
  - 따라서 협정의 효과에 대한 주의깊은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
- FTA 또는 개방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는 환율 문제로, 현재의 국제통화시스템은 세계를 세 개의 주요통화지역(북미, 유럽, 일본)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들 주요 통화간의 환율 변동은 매우 가변적임
  - 이들 주요 통화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환율의 변동은 교역재의 가격변화를 통해 소국(小國)들의 통화에도 영향을 미침
    - 예를 들어 미국 달러, 유로와 같이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화간의 환율이 변화할 경우, 양국 모두(또는 적어도 한 경제)에서 각각의 화폐로 표시된 교역재의 가격이 변화하게 됨
    - 이러한 가격 변화는 小國의 통화에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하게 되며, 결국 小國들의 실질 국내이자율과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쳐 파급효과가 小國 경제 전반에 미침
    - 주요 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이러한 불안정성은 小國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규모가 큰 경제의 통화에 환율을 고정시키는 경우에도 발생

- 1970년대 달러가 급격히 가치하락을 경험하던 시기에 몇몇 라틴아메리카 경제들은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매우 낮은 실질이자율을 보였음
- 이와 반대로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약 5년 동안 달러의 실질 가치 상승은 동기간 달러로 표시된 교역재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 동기간 미국의 소비자가격지수는 30% 상승하였고 생산자가격지수는 15% 상승하였지만, 개도국의 교역재 단위 가격은 전체적으로 약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대국과 소국들이 차별적 무역 협정에 가입하여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경우, 주요 통화 간의 환율이 변화함에 따라 소국 경제는 각각 상이한 영향을 받게 됨

- 각각의 소국 경제들이 수출재와 수입재의 구성이 다르며, 따라서 특정 재화의 가격이 주요 경제간의 환율 변동으로 변화할 경우 이에 따라 받는 영향도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함

□ 최근 지속적으로 관측된 달러/유로 환율의 변동은 주요 통화간의 환율이 불안정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경제 여건은 FTA 등의 협정에 참여하는 소국들의 실질이자율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이러한 변동을 피하기 위해 주요 통화에 자국의 통화가치를 특정 단일 통화에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요 통화간의 구매력지수(PPP) 실질 환율의 변동으로부터 오는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충격을 피할 수는 없음
- 따라서 고정환율제도는 또한 주요 통화간 환율변동이 小國의 명목이자율에 미치는 충격은 차단할 수 있지만 小國의 실질 이자율을 변동시키는 것은 막을 수 없고, 환위험을 악화시켜 국제자본시장에의 접근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상업적 거래를 위한 환율과 금융거래를 위한 환율을 별개로 운영하여 환율 충격을 피하는 방법도 있고, 몇몇 라틴아메리칸 경제와 유럽 경제가 이러한 정책을 채택한 적이 있으나, 동일한 화폐에 대해 두 가지의 다른 가격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없었음
- 또다른 방법은 소국의 통화 가치를 주요 교역국들을 고려한 통화바스켓에 연동시켜 외부 경제로부터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임

□ 결국 한국의 경우, 경제의 편익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미국뿐 아니라 더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 질서에 편입되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통화간의 환율의 변동으로부터 한국 경제로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바스켓을 고려한 환율 제도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 2세션] 칠레의 세계화 경험과 시사점

### 1. 칠레의 무역자유화 : 역사적 관점 클라우디오 브라보 (칠레대학교 교수)

대외개방정책 기초를 근간으로 하는 무역정책은 1990년대 이후 칠레의 안정적이고 견실한 성장을 견인

- 칠레는 1970년대 후반부터 개방과 경쟁의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해 왔으며, GDP, 고용, 국내저축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면서 대규모 외국인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안정적이고 견실한 성장세 지속
  - 1990년대 들어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으며, 일인당 GDP성장률도 5%에 달함
  - 최근 5년 동안에는 국제 銅 가격의 안정과 상승, FTA 발효, 지속적인 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수출과 내수가 동반 회복되면서 연평균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시현
- 칠레는 단일 관세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1999년에서 2003년까지 매년 1% 포인트씩 관세인하를 추진하여 현재 6%의 관세율 유지
  - 도입당시 105%이었던 평균관세율(최소 0 ~ 최대 700%)을 단일관세율로 통일(1975년)→35%의 GATT 양허 관세율 채택(1980년)→단일관세율 수준을 35%로 인상(1982~84년)
    - \* 가격대 제도(Price Band)의 도입: 밀, 밀가루, 식용유, 설탕에 대해 수입 가격대를 설정하고 수입 가격이 동 가격대 이하로 낮아질 경우 기본 관세 이외의 추가 관세를 부과(1983년)
  - 관세율 20%로 인하(1985년)→15%로 인하(1988년)→11%로 인하(1991년)→2003년까지 6%로 매년 1%포인트씩 인하 추진(1999년)
- 칠레는 1997년에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 10개국과 FTA를 체결 중이며, MERCOSUR (남미공동시장), EU와의 경제협력 및 볼리비아 외 4개국과 complimentation을 체결 중

- 칠레는 1996년 11월 캐나다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현재 파나마와 FTA 체결절차를 진행 중
  - MERCOSUR와 지속적인 가입협상을 벌여 온 결과 1996년에 회원국 정상회담에서 서명식을 가짐으로써 준회원국이 되었으며, 1996년 10월부터 대외공동관세(MERCOSUR 대외공동관세 13%, 칠레 11%)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정식 회원국과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고 있음
  - 칠레 정부는 유럽과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EU와 협상을 벌여 온 결과 1996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 맞추어 자유무역협정의 전단계로 'EU-칠레 기본협력협정'을 체결
- 칠레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의 결과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액 총액이 GDP의 50%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수출은 7%대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전통적으로 구리를 중심으로 한 광물이 수출의 주종이었으나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비중이 커지는 등 품목과 수출지역의 다변화가 진전
  - SITC 4 Digit기준으로 (1963년) 238개 품목 → (2000년) 499개 품목 수출
    - \* 환율제도: 1999.9월부터 수출증진을 통한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환율제도를 종전의 관리변동환율제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여 시행
- 칠레의 지역별 수출통계에 따르면 1962년 대유럽 47%, 일본 10%, 일본이외 지역 0%였던 수출비중이 2005년에는 각각 25%, 12%, 24%로 변화하면서 수출지역의 다변화가 이루어짐
- 대중국 수출비중이 2005년 현재 11.6%, 대한민국 수출비중이 6%를 차지하면서 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실적이 호조를 보임
- 칠레의 개방추진 정책은 무역, 경제성장, 고용성장 등의 제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

## [제 2세션] 칠레의 세계화 경험과 시사점

### 2. 세계화와 칠레경제

알레잔드로 자라 (칠레중앙은행 연구위원)

1970~80년대의 경제위기 상황을 제도개혁과 경제자유화 조치 등을 통한 개방형 시장 중심 경제 구축으로 극복하였고, 현재는 안정적인 금융경제시스템과 경제성장 유지

- 칠레는 최근 중남미에서 가장 좋은 경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개방형 시장 중심 자본주의 경제로의 체제 전환에 의한 바가 큼
  - 최근 30년간 칠레는 폐쇄형 국가주도 경제(closed, state-run economy)에서 개방형 시장중심 자본주의 경제(free-trade, market-oriented capitalism)로 전환됨.
  - 이 과정에서 칠레는 경제정책의 모범국가 사례로 꼽힘.
    - 무역개방이 칠레의 경제회복의 주요 요인이었으며, 현재 칠레경제에서 무역 비중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음
- 1970년 초반 칠레 경제는 폐쇄보호무역체제로 물가, 재정적자 등의 거시경제지표의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음
  - 1970년대 초반 칠레 경제는 폐쇄무역 체제였으며, 불안정한 물가, 높은 수준의 정부 개입은 물론 심각한 정도의 거시경제지표의 불균형을 겪음.
    - GDP의 30%에 육박하는 재정적자, 500% 이상의 연간 인플레이션, 평균 105% 달하는 수입관세 등.
    - 1960년대 후반, 1970년 초반 칠레의 은행과 금융기관에 예금된 개인저축(private credit)은 GDP의 10% 미만이었음.
- 거시경제 공황(Macroeconomic Crisis)과 개혁:1970년대
  - 1970년대의 거시경제위기로 말미암아, 1970년대 중반부터 칠레는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함.
  - 금융자유화(Financial Liberalization:1974-1981): 이자율을 자유화 시켰으며, 이외에도 여신한도와 특정부분의 강제대출 등을 철폐함. 한편 은행업에 대해서

도 진입장벽을 축소하고 국영은행을 민영화 함.

- 연금개혁(Pension Reform): 신규고용자에 대한 연금가입을 의무화하였으며, 연기금을 경쟁적인 민간기구에서 운용토록 함.

#### □ 경제공황과 금융위기:1980년대

- 1970년대의 거시경제개혁과 이로 인한 호의적인 외부조건 들이 1980년대에 대규모의 차입현상과 자산가격거품 현상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킴.
- 1980년대의 위기 현상으로 인해 규제제도상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으며, 새로운 은행법이 1986년 제정되었고, 1983년에는 파산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등 새로운 개혁조치들이 단행됨.

#### □ 현재 칠레 경제는 매우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과 개방형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중앙은행의 완벽한 독립으로 인해 물가와 경기안정을 조절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
  - FTA와 관세인하로 인해 세계경제와 통합성이 커지고 이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
- 칠레의 법제도 수준과 질, 경쟁성 수준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할 정도임
- 또한 지금까지의 제도개혁과 개방화 정책은 칠레경제가 거시경제적인 안정성 유지와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함.
  - 인플레이션 타겟팅 제도(inflation targeting regime)와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가 자리를 잡음
- 1990년대의 칠레의 경제성장률은 6% 이상이며, 인플레이션율도 90년대 초반부터 하락하여 2000년 이후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 또한 일련의 개방과 금융개혁 조치들은 칠레경제가 경제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공개강연] 미국과의 FTA 및 무역자유화 : 페루의 경험

로베르토 아부사다 (페루경제연구소 소장)

대외개방정책 기초를 근간으로 하는 무역정책은 1990년대 이후 칠레의 안정적이고 견실한 성장을 견인

- 페루는 1990년대 이후 시장 개혁과 무역개방화를 통해 총 요소생산성과 국내 총생산의 증가를 이룰 수 있었고 현재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
- 미국이 1994년 제정한 안데안 국가들에 대한 관세 특혜법(ATPDEA) 은 안데안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의류, 석유 및 정제 제품, 화훼, 그리고 설탕등 총 6000가지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
  - 이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페루의 대미 수출상품들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2005년 현재 40%까지 증가함.
  - 이로 인해 페루의 전체 수출 규모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의 평균 4.5%에서 최근 2004년에는 28%까지 증가함.
- WTO에 보고된 지역 통합 협정에 따르면 150개 이상의 양자간·지역내 자유무역 협정이 199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페루, 멕시코 등은 FTA로부터 많은 편익을 실현
  - 멕시코는 지난 20년간 지역협정을 통한 수출 다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광물 수출에 전체 수출의 70%이상을 의존하던 80년대에 비해 2004년 현재 수출 구조는 공산품이 84%, 광물이 12.6%를 차지
    - 전체 수출의 73.8%가 NAFTA를 통해 확보된 시장접근을 통해 가능해진 무역의 결과임
  - FTA가 멕시코의 농업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면, 멕시코의 옥수수에 대한 관세는 NAFTA가 체결된 94년 이후 50% 감소하였으나, 국내 생산량은 오히려 약 100만 톤이 증가
    - 또한 전체 농산물 수출 또한 거의 두 배 가까운 규모로 증가하였음.

- 한편 멕시코의 빈곤율은 1994년 이후 38%에 육박하였으나, 2000년대에 이르러 24% 대로 감소하였으며, 실질 임금은 약 70% 증가

□ FTA가 거시 경제에 미치는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이용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 (Dynamic General Stochastic Equilibrium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과 페루의 FTA는 페루 경제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추정

- 향후 20년간 약 4.59%의 경제성장률 증가효과, 10.32%의 수출증대효과, 6.97%의 수입 증대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소비는 향후 20년간 약 5.47% 정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미국과 페루의 FTA는 2004년 5월 시작하여 2006년 4월 12일 체결될 때까지 약 13차에 걸친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미국과의 FTA가 이미 체결된 칠레, 싱가포르 등의 협정들과 더불어 NAFTA와 CAFTA-DR을 모델로 삼아 준비

□ FTA 체결에 따라 페루의 총 국내 수입 관세의 77%를 자유화되었고, 페루는 미국으로부터 신발과 참치를 제외한 모든 수출품목에 대해 안데안 관세특혜법을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완전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권한을 부여받음

- 민감품목에 대해선 7~10년에 걸친 기간동안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동의함.

- 농업부분의 안데안 관세특혜법은 FTA 이후에도 유지되며, 농공용제품 또한 포함

- 특히 면화제품과 돼지요리제품에 대해선 더 폭넓은 관세특혜가 이루어짐.

- 페루의 설탕수출에 대해 미국의 수입쿼터 비중을 높이기로 하고, 페루의 민감농산품목은 2~17년간의 기간에 걸쳐 개방하기로 합의함.

- 페루는 미국밀 수입에 대해 즉각 개방에 합의하고, 쌀에 대해선 17년간, 돼지고기는 5년, 양고기는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함.

□ 페루는 모든 섬유와 의류제품을 즉각 개방하기로 합의

- 셰이프가드 조치는 FTA이후 5년 동안의 기간동안만 취해질 수 있도록 합의하고, 대신 원산지 규정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함.

- 미국과의 FTA를 통해 페루는 서비스업의 수출 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 투자분야에 있어선 투자자와 정부간의 분쟁을 투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로 상호 합의함
  - 환경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비차별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페루는 또한 미국 연방정부 조달권을 획득하고, 특허와 자료보호에 관련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대해 제한과 예외를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미국은 페루의 생태환경, 전통문화 등이 페루 발전에 기여하는 잠재력의 중요성을 존중하기로 함

## [제 3세션] 미국과의 FTA : 각국의 경험과 시사점

### 1. DR-CAFTA : 체결목적과 경제의 구조적 변화

에스더 아리스티 (글로벌 파운데이션 연구위원)

DR-CAFTA(도미니카 공화국-중미 자유무역협정)는 무역자유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적인 틀이며, 이러한 목표 달성은 도미니카 공화국 경제의 구조개혁 성공 여부에 달림

□ 도미니카 공화국은 무역이 GDP의 약 12%를 차지하며, 미국, 네덜란드, 한국, 캐나다, 하이티, 일본, 독일, 스페인 등이 주요 교역국임

- 지리적 위치, 지도층의 의지, 국민들의 의욕 등을 고려할 때 교역증대를 통한 성장의 잠재력이 매우 큼.

□ 도미니카 공화국 의회는 2005년 DR-CAFTA를 비준하였고 협정은 2006년 발효함.

- 2002년 1월 16일 미국은 중남미 6개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을 선언
- 2004년 8월 5일 당사국들이 협정에 조인
- 2005년 9월 5일 도미니카 공화국 의회는 협정을 비준
- 현재 미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이 CAFTA에 참여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황

□ DR-CAFTA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자유무역의 이익을 향유하게 함.

- 국민들이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globally competitive prices)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4,000여개 이상의 상품 (전체 시장의 80%)에 대해 관세를 완전 철폐
  - 쌀, 콩, 양파 등에 대해서는 점진적 관세인하(5, 10, 12, 15 20년 경과 조치)

- 쌀, 요거트 등에 대해서는 수입이 연간 킬로그램 혹은 정해진 물량을 30% 이상 초과할 때 세이프가드 작동
  - CAFTA는 또한 미국 시장을 자유화시켜 도미니카 공화국 생산자들의 미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시키는 효과
    - 전체 시장의 99.6%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
    - 신발, 채소, 낙농제품 등에 예외조항
    - 영속적 특혜 조치 (Permanent Preferential Treatment)를 둠
  - CAFTA 회원국으로부터의 재료, 중간재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원산지 규정의 예외로 인정
    - CAFTA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재화의 경우, 미리 정한 관세코드(재화의 생산단계에 따라 다른 관세율을 적용)를 준수한 경우 원산지 규정의 예외로 인정
  - 도미니카 공화국은 또한 사업 지원절차의 아우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콜센터, 전문적 서비 등의 활발한 역외 이동을 기대
- 도미니카 공화국은 DR-CAFTA를 계기로 국내의 제도개혁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
- 제도개혁 강화의 예
    - 금융시장, 에너지, 통신시장을 개방하고 해외투자자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
  - 행정구조의 개혁과 현대화
  - 기업경영과 정부운영상의 투명성 제고
    - 정부조달의 개선, 교역에 대한 불명확한 규제 제거, 관세 철폐, 세관통관업무의 단순화, WTO 혹은 DR-CAFTA panel을 통한 분쟁 해결, 제도의 준수를 감독할 수 있는 초국가적 기구 설치 등
- 결론적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이 DR-CAFTA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i) 자유로운 무역과 (ii)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의 제도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법적

구조이며, 그 결과는 우리의 효과적인 구조개혁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구조개혁을 추진중

- 다양한 교육개혁, 제도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업경영 관련 규제철폐, 세제 개혁 등을 추진
-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
-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국제적 지원
  - 특히 CAFTA를 넘어, 한국의 “Knowledge Partnership” 등에 깊은 관심
-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러한 구조 개혁이 중대하고 어려운 과제임을 인지
  - 수출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와 생산의 권익을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서는 항상 민간부문과 협력
  - 이러한 정부와 국가 전체의 노력은 국제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